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영농철 일손 보태기

주남현 기자 | 승인 2026.05.20 11:02

'KRC 영농도우미 행복충전활동' 전개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직원들이 방울토마토 농가에서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광주지사

| 광주=한스경제 주남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광주지사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

광주지사는 지난 19일 광산구 소재 농가를 찾아 'KRC 영농도우미 행복충전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활동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취약농가를 돕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마을주민 및 광주지사 임직원 총 20여명이 영농도우미로 참여해 농가의 방울토마토 수확 작업, 잡초 제거, 농가 환경 정비에 일손을 지원했다.

김철상 광주지사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전직원이 힘을 모아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